

언어 영역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듣기대본 및 해설

1. <듣기> 이제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규모가 작은 지진이 몇 번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지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먼저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은 땅 속의 거대한 암반이 갈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 속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단 구조물의 흔들림이나 사람들의 느낌을 통해 감지되지요. 그래서 지진의 크기는 보통 '진도'로 표시합니다. 그럼 '진도'는 무엇일까요?

'진도'는 방금 말했듯이 사람의 느낌이나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진도'는 '메르칼리 진도'인데, 지진의 크기를 12등급으로 표시하지요. 예를 들어 '진도 III'은 건물 옥상에서의 약간의 흔들림, '진도 VI'은 모든 사람들이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올 정도의 흔들림을 나타냅니다. '진도'는 지진 발생 지역에 가까이 있으면 커지고, 멀어지면 작아지는 특징이 있지요.

그렇다면 지진의 크기를 표시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을까요? 뉴스에서는 지진을 보도할 때 흔히 '리히터 규모 얼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규모'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말합니다. '규모'는 0에서 9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데, 정수뿐만 아니라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국제적 기준을 처음 제시한 학자가 바로 '찰스 리히터'로, '리히터 규모 얼마'라는 표현은 그래서 생긴 것이죠.

이제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진도'와 '규모'에 대해 분명히 아시겠지요?

[출제의도]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의에서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진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2. <듣기> 이번에는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배경 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멋과 신명을 찾는 '풍물놀이 마당'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상도 내륙 지방의 풍물놀이 중에서 '열두 발 상모돌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모돌리기는 풍물놀이의 절정이지요. 특히 열두 발이나 되는 상모를 돌릴 때 관객은 풍물놀이의 재미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상모돌리기의 몇 가지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동작은 서서 외사를 치는 동작입니다. 외사는 상모 끝에 달린 흰 끈처럼 생긴 상모지를 한쪽 방향으로만 돌리는 것입니다. 이때 두 손은 뒷짐을 집니다.

다음은 누워서 외사를 치는 동작입니다. 왼손으로 땅을 짚고 옆으로 누워 머리를 축으로 한 바퀴 돌면서 외사를 칩니다. 이때 상모지가 원을 그리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보기보다 어려운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서서 양사를 치며 상모지를 한 번씩 다리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동작입니다. 양사란 상모지를 한 방향으로 돌린 후,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바꿔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모가 공중으로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상모를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동작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 동작은 채두이 상모지를 뒤로 넘겼다가 다시 머리 앞으로 뿌리는 동작입니다. 열두 발 상모돌리기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은 풍물놀이 중에서 열두 발 상모돌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전통 놀이를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음악)

[출제의도] 들려준 내용을 그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방송에서 들려준 첫 번째 동작은 ①에, 두 번째 동작은 ③에, 세 번째 동작은 ②에, 마지막 동작은 ⑤에 제시되어 있다. ④번 동작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3. <듣기> 이번에는 미술 수업의 한 장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여) : 오늘은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섣달여왕과 모란 그림 얘기 알고 있지요? 모란 그림에 나비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아, 이 그림 속의 꽃에는 향기가 없구나'라고 말해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는 얘기 말이지요.

학생(여) : 그런데 선생님, 우리 학교 화단에 핀 모란에는 향기가 있던데요. (웃음) 혹시 나비가 없는 꽃 그림을 보내서 독신이었던 섣달여왕을 은근히 놀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선생님(여) : 으흠, 그럴듯한 해석이네요. 하지만 생각을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동양에서 모란은 부귀를 상징하고, 나비는 오래오래 산다는 장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모란과 나비를 함께 그리면 부귀와 장수 모두를 누리라는 뜻이지요. 섣달여왕에게 보낸 그림에 나비가 없었던 까닭은, 여왕이 젊기 때문에 굳이 장수를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학생들 : 아~!

선생님(여) : 그림을 본다는 것은 그냥 색과 모양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림 속에 숨은 의미를 읽어내는 것도 그림 감상 방법의 하나이지요. 이러한 감상법을 '그림 읽기', 혹은 '독화법'이라고 합니다.

학생(남) : 선생님, 그러면 피라미, 풀, 잉어가 함께 그려진 그림은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여) : 좋은 질문입니다. 그 그림은 여러 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요. 그림 하나하나 그림을 읽어볼까요? 피라미는 아주 작은 물고기라서 어린 시절을 의미합니다. 풀은 부평초와 여뀌라는 것인데, 부평초는 뿌리가 물에 떠 있는 생태적 특성이 있지요. 그래서 부평초의 의미는 (사이)

학생(남) : 뿌리가 물에 떠있다? 혹시 떠돌아다니는 건가요?

선생님(여) :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타향살이의 뜻으로 부평초를 그려 넣었습니다. 반면 여뀌는 공부를 마친다는 뜻의 졸업을 의미합니다. 여뀌의 한자와, 일을 마친다, 완료한다의 한자 발음이 같아서 그런 뜻을 갖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잉어는 힘이 센 물고기로, 잉어가 여러 난관을 뛰어 넘어 중국 황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뱀이 된다는, 등용문 고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잉어에는 관리로 크게 출세한다는 뜻이 담겨 있지요.

학생(여) : 아하, 어릴 때 타향살이의 고생을 이겨내고 학업을 무사히 마치 기운찬 잉어처럼 성공하라는 것이군요. 그림을 읽는다는 것은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재밌는 일이네요.

[출제의도] 들려준 내용을 통해 정보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대상과 관련된 유명한 글귀를 상기하며 읽는 독화법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4~5. <듣기> 이번에는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 : 오늘은 '21세기에 요구되는 인재'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대학교의 김세중 교수님과 세종 전자의 박인식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방법이 특이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박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지요.

박 부장(남) :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명문대학만 나왔다고, 또 필기시험만 잘 봤다고, 외국어 시험 점수만 높다고 뽑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면접 때 똑 부러지게 말 잘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지요. 요즘 기업에서는 사이버머니를 써서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미니홈피 꾸미기, 서바이벌 게임 실시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요. 이는 지원자들에게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을 주고, 그들이 가진 위기 대처 능력, 창의력, 사회적 친화력 등을 살펴보는

[출제의도] 들려준 내용을 통해 정보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대상과 관련된 유명한 글귀를 상기하며 읽는 독화법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박 부장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5. [출제의도] 이어질 말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김 교수는 마지막에 팀플레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 지원자들의 요건으로 친화력과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6. [출제의도] 그림을 보고 적절한 논지를 연상하는 문제이다.

왼쪽 그림은 갈등으로 인한 파괴, 가운데는 화해와 협력, 오른쪽 그림은 조화와 통합을 뜻한다. 이러한 그림의 내용에 일치하는 것은 협약 준수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7. [출제의도] 주제에 따른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예상 독자가 공동주택 주민이므로 지역의회에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것은 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8. [출제의도] 작성된 개요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이다.

본론II의 흐름과 'II-2'의 하위 내용 포괄을 고려할 때 '문제의 원인'이 더 적합하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표현하는 문제이다.

①은 비유적 표현이 없고 ②, ⑤는 소재의 용도보다 특징에 주목했고 ③은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 표현의 적절성이 떨어져 최고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10. [출제의도] 올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이다.

㉠은 논지와 일치하는 것이므로 삭제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11. [출제의도] 보조사의 용법을 묻는 문제이다.

'은'은 받침이 있을 때, '는'은 받침이 없을 때 선택되는 이형태의 보조사이다. (가)의 '은'은 격조사 자리에서 일정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이다. (나)의 '는'은 수학과와 대조를 보여 주는 보조사이다. (다)의 '는'은 부사 '멀리'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것으로, 부사의 뒤에는 격조사가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12. [출제의도] 주어진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문장을 작성하는 문제이다.

'늑을 먹다'는 '나라에서 주는 봉록을 받다'라는 의미로, '육심을 채우다'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 현대 소설 **

13. [출제의도] 추리를 통해 소설 내용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이다.

김 교수님, 이렇게 채용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교수(여) : 무엇보다 21세기라는 시대 상황이 새로운 인재를 원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21세기는 지식 정보를 토대로 한 시대입니다. 표준화와 집중화를 강조하던 산업사회의 인재가 다양한 기능을 조직하는 통합자였다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인재는 정보의 바다를 횡단할 항해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여) : 시대 상황이 새로운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 부장님, 그렇다면 21세기의 인재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할까요?

박 부장(남) : 예전에는 성실성, 책임감, 조직관리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광범위한 시야,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 발상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찰력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외적 환경에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사회자(여) : 과거의 인재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앞으로의 인재는 지식 자체의 많고 적음보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예견할 수 있는 통찰력과 기획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마디 해주시지요.

김 교수(여) :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독불장군식 태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팀플레이가 중요시되는 추세이지요. 어떤 과업을 기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취업 지원자들은

것이지요.

사회자(여) : 사원 채용 방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군요. 김 교수님, 이렇게 채용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교수(여) : 무엇보다 21세기라는 시대 상황이 새로운 인재를 원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21세기는 지식 정보를 토대로 한 시대입니다. 표준화와 집중화를 강조하던 산업사회의 인재가 다양한 기능을 조직하는 통합자였다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인재는 정보의 바다를 횡단할 항해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여) : 시대 상황이 새로운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 부장님, 그렇다면 21세기의 인재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할까요?

박 부장(남) : 예전에는 성실성, 책임감, 조직관리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광범위한 시야,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 발상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찰력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외적 환경에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사회자(여) : 과거의 인재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앞으로의 인재는 지식 자체의 많고 적음보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예견할 수 있는 통찰력과 기획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마디 해주시지요.

김 교수(여) :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독불장군식 태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팀플레이가 중요시되는 추세이지요. 어떤 과업을 기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취업 지원자들은

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박 부장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5. [출제의도] 이어질 말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김 교수는 마지막에 팀플레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 지원자들의 요건으로 친화력과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 쓰기 **

6. [출제의도] 그림을 보고 적절한 논지를 연상하는 문제이다.

왼쪽 그림은 갈등으로 인한 파괴, 가운데는 화해와 협력, 오른쪽 그림은 조화와 통합을 뜻한다. 이러한 그림의 내용에 일치하는 것은 협약 준수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7. [출제의도] 주제에 따른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예상 독자가 공동주택 주민이므로 지역의회에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것은 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8. [출제의도] 작성된 개요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이다.

본론II의 흐름과 'II-2'의 하위 내용 포괄을 고려할 때 '문제의 원인'이 더 적합하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표현하는 문제이다.

①은 비유적 표현이 없고 ②, ⑤는 소재의 용도보다 특징에 주목했고 ③은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 표현의 적절성이 떨어져 최고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10. [출제의도] 올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이다.

㉠은 논지와 일치하는 것이므로 삭제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11. [출제의도] 보조사의 용법을 묻는 문제이다.

'은'은 받침이 있을 때, '는'은 받침이 없을 때 선택되는 이형태의 보조사이다. (가)의 '은'은 격조사 자리에서 일정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이다. (나)의 '는'은 수학과와 대조를 보여 주는 보조사이다. (다)의 '는'은 부사 '멀리'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것으로, 부사의 뒤에는 격조사가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12. [출제의도] 주어진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문장을 작성하는 문제이다.

'늑을 먹다'는 '나라에서 주는 봉록을 받다'라는 의미로, '육심을 채우다'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 현대 소설 **

13. [출제의도] 추리를 통해 소설 내용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이다.

김 교수님, 이렇게 채용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의 갈등은 (다)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다)에서 덕기가 말한 것은 아버지를 변명해 주기 위해 추측한 내용이지 사실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14. [출제의도] 내용을 통해 인물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나)에서 조부가 작은 일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주도면밀한 면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15. [출제의도] 대사에 어울리는 지문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문맥으로 볼 때, ㉠은 부드러운 말투와 느린 속도로 공손하게, ㉡은 시비걸 듯 긴장하는 어조로 상대를 바라보며, ㉢은 낮은 목소리로 허리를 굽히며, ㉣은 큰 소리로 억박지르며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이다.

16. [출제의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종교를 통해 삶의 위안을 얻는 모습은 위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이다.

**** 기술 ****

□ 출전 : 최성우, 「홀로그래피의 원리」

17.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입체 영상은 빛의 명암과 색상만이 아니라 위상 정보까지 기록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18. [출제의도]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기술 혁신'은 신기술의 발견과 발명이 집적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의미하므로, 홀로그래피의 상용화를 말하는 (마)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19. [출제의도] 그림 자료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다)의 둘째 문장에 동일한 광선이 간섭성을 좋게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A와 B는 동일한 광원에서 나온 빛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 고전 소설 ****

20. [출제의도]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문단 중간에 정 소저는 '나는 얼굴을 들어 출입하지 못하므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21. [출제의도] 유사한 의미를 지닌 한자 성어를 묻는 문제이다.

- 가인박명(佳人薄命) : 아름다운 여자는 명이 짧음
 - 낭중지추(囊中之錐) : 주머니 속의 송곳. 곧,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뜻
 - 당랑거철(螳螂拒轍) : 제 분수도 모르고 강적에게 반항함
 - 막역지우(莫逆之友) : 아주 허물이 없는 벗
 - 백년하청(百年河清) : 중국의 황하(黃河)가 항상 흐리어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뜻
-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22. [출제의도] 감정의 이유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이 소저는 춘운의 글 솜씨가 아니라 춘운의 외모와 자태를 보고 명성이 들던 바와 같음을 확인하고 감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이다.

23. [출제의도] 비평적 해석을 하는 문제이다.

<보기>에 나타난 지배층의 세계관과 끝 부분에 난양 공주가 정 소저와 함께 가마를 탄 것을 연결하여 보면, 이 둘의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 예술 ****

□ 출전 : 최종민, 「한국 전통음악의 미학사상」

24. [출제의도]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본문은 음악의 재료가 되는 음(音), 장단, 선율, 합주의 순으로 전통음악의 특징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25.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전통음악에 화성이 없더라도 음악적 표현력에 있어서 결코 서양 음악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이다.

26.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추론하는 문제이다.

전통음악의 합주는 개별 악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처럼 부분의 독립성과 전체의 어우러짐이 함께 나타난 예는 ③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27. [출제의도]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이다.

전통음악에는 궁중음악부터 민속악까지 다양한 음악이 존재한다. 이를 하나의 범주로 포괄하는 것

은 지나친 일반화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 수필과 고전 운문 ****

28.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이다.

(가)는 혼란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는 유배를 간 화자가 유배지에서 임(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29.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찾는 문제이다.

(가)는 '바둑 장기', '쟁과 북소리' 등의 시어를 통해 혼란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30.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찾아 탐구 과제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보기>는 시조이며, (나)는 가사이다. 그런데 두 작품 간에는 공통적으로 쓰인 관용적 문구가 들어 있다. 이를 통해서 문학 작품 간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 탐구 과제가 적절하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31.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다)의 작가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짜보'를 보고 느낀 점을 말하고 있다. '짜보'는 작가에게는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 주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32.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이해하는 문제이다.

㉠에서 주인집 개가 화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화자의 유배 생활이 오래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화자는 이런 상황이 반갑지 않다. 왜냐하면 입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름을 잊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 화자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 인문 ****

□ 출전 : 이정우, 「장자 다시 읽기」

33. [출제의도] 사례와 관련하여 주제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사물의 실용적 가치에 국한된 해자의 사고를 깨뜨리는 장자의 사고는 지문 중 '호방함과 처연함'에 연결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이다.

34. [출제의도]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장자는 관습과 규범을 중시하는 위(位)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초월적 사유를 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이다.

35. [출제의도] 개념과 사례를 연결 짓는 문제이다.

위(位)의 삶은 자리와 이름에서 비롯되는 갈등, 경쟁, 질시, 시기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방한을 목적으로 옷을 산 것은 사례로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36. [출제의도] 단어의 관계를 찾는 문제이다.

기쁨과 슬픔은 반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 현대시 ****

37.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는 '~에서 ~다', (나)는 '~나 ~라', '노나 저어간다', (다)는 '아베도 알지려요' 등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38. [출제의도] 화자의 태도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칸델라블은 화자에게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지난 삶이 자유로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39.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①건너간다'는 시간적으로는 화자의 성장, 공간적으로는 강의 이쪽에서 저쪽으로의 이동을 함축하면서 화자의 삶의 역정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40.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를 추리하여 대화 상황을 구성해보는 문제이다.

만술 아버지는 '까막눈'이다. 따라서 만술 아버지는 축문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어려운 형편에 체사상을 차리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화자인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따라서 당연히 축문이 있어야 한다는 ①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이다.

**** 사회 ****

□ 출전 : 김기태, 「매스미디어와 저작권」

41.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본문은 남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현행 저작권

법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됨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이다.

42.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셋째, 넷째 문단에서 인용의 요건을 분석하여,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을 제시하고 있다(ㄱ). 또, 첫째 문단에서 저작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ㄷ).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43. [출제의도] 본문을 근거로 다른 글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불가피하게 남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이 주(主)를 이루고, 다른 저작물의 일부가 종(從)이 되어야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된다. <보기>의 B는 남의 저작물을 거의 복사하다시피 했으므로 인용의 정당한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44.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학습할 자료를 찾는 문제이다.

첫째 문단에서 저작권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본문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한 개념을 추가해서 심화 학습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이다.

**** 과학 ****

□ 출전 : 박경미, 「수학 콘서트」

45. [출제의도] 주어진 글의 정보를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이다.

첫째 문단에 마방진의 개념, 둘째 문단에 마방진의 기원, 다섯째 문단에 마방진의 응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마방진의 종류는 라틴 마방진, 입체 마방진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마방진의 폐해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46. [출제의도] 주어진 글을 읽고 예상되는 과제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본문의 마지막 문단에 아직까지 마방진 전체를 아우르는 수학적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4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본문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마방진은 예로부터 신비한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겼다고 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이다.

**** 언어 ****

□ 출전 : 남영신, 「신조어 만들기」

48.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①은 둘째, ②는 첫째, ③과 ④는 다섯째 문단에 각각 그 내용이 나와 있다. 넷째 문단에서 동식물 이름 이외의 분야에서는 우리말 이름을 만들어 놓은 곳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

49. [출제의도] 유사한 조어법의 단어를 찾는 문제이다.

돌미나리는 돌의 모양을 닮은 미나리가 아니라 야생을 의미하는 접두사 '돌'에 '미나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50. [출제의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우리말의 조어능력을 살려 형태소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신조어를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석주명 선생의 '부전나비'를 예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이다.